

## HEADLINE NEWS

### 도심 활성화를 위해 낡은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재사용 (L.A.)

미국 로스앤젤레스市가 주택위기 해결 및 도심 활성화를 위해 1999년에 제정한 「재사용조례」가 놀랄 만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市 중심가의 낡은 업무용 건물들이 이 조례에 따라 주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 230가구의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현재 1,000가구 이상이 완성되었고, 3,500가구가 공사중이거나 계획중이다. 도심의 문화시설, 편리한 교통, 상업·행정의 중심지라는 매력에 이끌려 새로운 거주자들이 市전역에서 도심으로 다시 몰려 오고 있으며, 도심은 거주민의 증가에 따라, 상점들이 늘어나면서 24시간 활성화되고 있다.

「재사용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업무용 빌딩을 주거용으로 바꾸기 위해 수많은 법규정을 따라야 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빌딩 리모델링 건설허가를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엄청난 규모의 민간자본이 최소한의 공공지원으로 이러한 재사용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했다. 市는 도심에서의 성공에 고무되어, 市전역의 낙후지역을 재활성화하고 더 많은 주택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03년 12월 1일부터 「재사용조례」를 市전역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www.lacity.org/mayor/moed/arp/arpab1.htm)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유흥업소의 야간영업 규제할 새로운 법안 제안 (뉴욕)

### 도시환경

- ② 건설중장비 차량 초(超) 저항 경유 사용 의무화(뉴욕)

### 도시교통

- ③ 버스 서비스 향상을 통한 버스 이용 증진방안 마련 (워싱턴 D.C.)
- ④ 보행자 안전을 위해 첨단 횡단보도 설치 (로스앤젤레스)
- 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사전 주차장 예약 프로그램 실시 (코네티컷주: 그리니치市)
- ⑥ 교통계획 수립 위해 주민 설문조사 실시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 사회복지·문화

- ⑦ 고령자의 원활한 입주를 위한 임대주택 등록제도 실시 (동경)
- ⑧ 도유지 엽가 임대를 통한 그룹홈 운영 사업자 모집 동경
- ⑨ 저소득 노인·장애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법 도입 (뉴욕)
- ⑩ 소비자를 위한 연말연휴 쇼핑가이드 제공 (뉴욕)

### 행재정

- ⑪ 「선거공약 준수 이행 현황 보고서」 발간 (뉴욕)
- ⑫ 신뢰할 수 있는 시장(市場)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용 지침서 배포 (뉴욕)
- ⑬ 市정부가 수익 증대를 위해 호텔 벤처 사업 추진 (애리조나주: 피닉스市)

### ① 유흥업소의 야간영업 규제할 새로운 법안 제안 (뉴욕)

미국 뉴욕시는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밤 놀이(nightlife)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댄싱업소, 클럽 등 야간업소들을 규제하는 카바레법이 지역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 무질서한 군중, 지저분한 인도(sidewalk)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자 최근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새로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모가 50석 이상인 업소는 정식 안전요원을 손님 50명당 1명씩 고용해야 하고, 이 안전요원은 필요할 경우 업소 밖의 질서 유지를 책임져야 한다. 둘째, 야간업소는 손님이 들어올 때나 나갈 때 소란이나 차량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업소 주변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사무국은 수시로 소음을 측정하고 市소음조례를 적용할 권한을 가진다. 넷째, 규제를 위반할 경우 첫번째 위반시 벌금 250달러, 세번째에는 벌금을 1,000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2년 안에 3번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사무국은 30일 동안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섯째, 소비자사무국은 무면허 음주 판매, 미성년자 대상 음주 판매, 스프링클러 작동 불능, 출구 및 비상구 표시 미흡, 비상구 작동 불능, 강간 시도, 무기 소지, 살인, 폭행 등의 행위가 3회 되풀이될 경우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여섯째, 주택가에 위치한 75석 이상의 업소, 또는 상업지역·공장지역 및 혼합 지역에 위치한 200석 이상의 업소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 시키면서 새벽 1시 이후에도 영업할 경우 모두 소비자사무국으로부터 2년 단위의 야간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안의 목적은 市의 밤 놀이 산업을 활성화하면서도 주변 지역의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이 규제를 어기는 업소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www.home.nyc.gov/html/dca](http://www.home.nyc.gov/html/dca))

# 도시 환경/도시 교통

## ■ 세계도시동향 ■

### 2] 건설중장비 차량 조(超) 저황 경유 사용 의무화 (뉴욕)

미국 뉴욕시는 市건설공사에 투입되는 50마력 이상의 경유용 건설 장비인 크레인, 불도저 등 비도로용 차량들은 앞으로 초저유황 연료를 사용하도록 최근 의무화했다. 市는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천식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 천식 등 호흡기질환에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비도로용 디젤 차량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것이다.

市는 현재 남부 맨해튼 재건축, 도로 개선 공사, 각종 빌딩 건설 공사, 산업 하부구조 건설 등으로 비도로용 차량 이용이 전체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市는 연료 공급자와 차량 제작사, 건설사에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남부 맨해튼의 市공사에만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타지역은 2년 동안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index.jsp?pagel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www.nyc.gov/html/officeofairquality/html/press\\_releases/pr\\_20031223.html](#))  
(index.jsp?pagel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www.nyc.gov/html/officeofairquality/html/press\_releases/pr\_2003-12-23)

### 3] 버스 서비스 향상을 통한 버스 이용 증진방안 마련 (워싱턴 D.C.)

미국 워싱턴 D.C.의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는 버스 서비스 향상을 통한 버스 이용 증진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 방안은 버스 이용정보 제공 강화, 버스우선신호시스템과 같은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버스 통행속도 증진, 버스 정류장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이 방안을 시행하여 신뢰성 있는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행 시간을 단축시켜 버스 이용객 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계획은 다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는 내년 초 까지 버스 서비스 안내 웹사이트를 개선하고, 지역 내 버스 노선도를 제작해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www.wmata.com/about/MET\\_NEWS/PressReleaseDetail.cfm?ReleaseID=241](#))

### 4] 보행자 안전을 위해 첨단 횡단보도 설치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시는 최근 「smart crosswalk」 라는 첨단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위해 이 횡단보도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도로 표면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장치가 작동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기존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횡단신호가 켜졌을 때에도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첨단 횡단보도 설치에는 1개당 약 4만달러가 소요되나, 차량 정지율을 기존 횡단보도의 40%에 비해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므로 보행자 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ww.latimes.com/news/local/la-me-wheel9dec09,1,6719120.story?coll=la-headlines-california](http://www.latimes.com/news/local/la-me-wheel9dec09,1,6719120.story?coll=la-headlines-california))

### 5]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사전 주차장 예약 프로그램 실시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시)

미국 코네티컷주의 그리니치(Greenwich)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사전에 주차장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 운영에 착수했다. 미국에서 최초로 그리니치 상공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1개월간의 이 프로그램에는 현재 6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그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강하여 지역내 모든 주차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운전자가 주차장에 도착하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주차 관리 센터로 보내면, 센터는 즉시 확인 메시지를 발송하고 해당되는 주차요금을 이용자의 계좌에서 인출하게 된다. 당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차 미터기에 동전을 넣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greenwichtime.com/news/local/scn-gt-parking3dec04,0,5891494.story?coll=green-news-local-headlines](http://www.greenwichtime.com/news/local/scn-gt-parking3dec04,0,5891494.story?coll=green-news-local-headlines))

# 도시교통/사회복지·문화

## ■ 세계도시동향 ■

### ⑥ 교통계획 수립 위해 주민 설문조사 실시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미국 유타주 교통부는 2030년 장기 교통계획 수립을 위해 최근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당국은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장기 교통계획의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화 인터뷰 및 개인 면접 조사, 전문가 그룹 조사 등의 방법을 동원한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자들은 계획 과정에서 일반 주민의 참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교통부는 지역내 교통 관련기관과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다양한 교통수단의 효율적 연계에 초점을 맞춘 교통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교통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일반 시민의 참여 방법을 점차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deseretnews.com/dn/view/0,1249,575036712,00.html)

### ⑦ 고령자의 원활한 입주를 위한 임대주택 등록제도 실시 (동경)

일본 東京都 주택국은 고령자의 민간 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된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령자가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고령자의 원활한 입주를 위한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신설했다.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인터넷과 기초자치단체의 창구를 통해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주택 소유주는 입주자를 조기에 확보할 수도 있다. 또한 입주자의 신체 이변 등 긴급 시에 보증인을 대신하여 보호를 해주는 '안심입주제도'를 실시하여 주택 소유주의 불안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고령자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임대주택의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국은 임대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이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2004년 1월 31일 都의회 의사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www.metro.tokyo.jp/INET/BOSHU/2003/12/22dcp200.htm)

### 8] 도유지 임가 임대를 통한 그룹홈 운영 사업자 모집 (동경)

일본 東京都는 고령자와 장애자가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룹홈(group home) 설치를 늘리고 있다. 그 일환으로 그룹홈 운영 사업자에게 도유지(都有地)를 저렴한 요금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개시, 이번에 都내 5개소의 도유지에 대해 사업자를 모집한다. 都는 그 5개소에 각각 ‘치매성 고령자 그룹홈’ 3개소(1개소는 노인 주간보호센터 겸함), ‘지적장애자 그룹홈’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임대조건은 정기차지권(定期借地權) 설정 계약(계약기간 50년), 임대료는 통상 산정한 임대료에서 50% 감액된 금액이 된다. ‘치매성 고령자 그룹홈’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NPO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농업협동조합, 소비생활협동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에 응모 자격이 주어지며, ‘지적장애자 그룹홈’은 사회복지법인, NPO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응모자격이 주어진다.

([www.metro.tokyo.jp/INET/BOSHU/2003/12/22dcj200.htm](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03/12/22dcj200.htm))

### 9] 저소득 노인·장애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법 도입 (뉴욕)

미국 뉴욕市는 2003년 상반기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주택을 소유한 노인에게 대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한 데 이어, 최근에는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법안을 도입했다. 주택을 소유한 장애인은 기존에는 10단계로 구분되는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재산세 면제 소득 상한수준이 2,500달러 정도로 상향조정되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가장 높은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자신의 재산평가액의 50%가 면제 되는데, 주택을 소유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소득 상한선이 21,500달러에서 24,000달러로 상향조정되었다. 따라서 예전에는 23,500달러의 소득이 있는 장애인이 재산평가액의 35%를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가진 재산평가액의 5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안은 소득이 낮은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자신의 소득으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index.jsp?pagel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www.nyc.gov/html/finance/html/assessmt/assessmt\\_2003-12-23](http://index.jsp?pagel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www.nyc.gov/html/finance/html/assessmt/assessmt_2003-12-23))

# 사회복지·문화/행·재정

## ■ 세계도시동향 ■

### ④ 소비자들을 위한 연말연휴 쇼핑가이드 제공 (뉴욕)

미국 뉴욕시 소비자사무국은 연말연휴 쇼핑 시즌을 맞아 소비자들을 돕기 위해 쇼핑 요령을 알려주고, 온전한 제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사무국의 쇼핑요령에는 물건을 살 때 영수증을 받을 것, 상점의 환불 및 교환정책을 확인할 것, 모든 영수증을 보관할 것, 제품 송부 영수증을 받을 것,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경우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o.) 또는 개인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말 것, 가전제품은 반드시 내용물과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것, 연말시즌의 점포정리/폐업정리 세일 등을 조심할 것, 제작사의 보증과 상점의 보증정책 사이에 차이점이 없는지 확인할 것 등 세세한 부분까지 소비자가 주의할 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며, 각 사항마다 시의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설명하고 있다.

([www.home.nyc.gov/html/dca](http://www.home.nyc.gov/html/dca))

### ④ 「선거공약 준수 이행 현황 보고서」 발간 (뉴욕)

미국 뉴욕시는 뉴욕시장이 2001년 선거운동 기간에 공약한 선거공약사항의 이행 현황을 설명하는 「선거공약 준수 보고서(campaign accountability report)」를 최근 발표했다. 시가 이 보고서를 발간한 이유는 시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이 선출한 공무원이 어떻게 선거공약을 준수해 나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리고,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보고서에서 시장은 선거공약 380여개 중 약 80%가 이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15%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시가 계속 추진하고 있고, 5%는 시에서 그동안 검토하였으나 결국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index.jsp?pageI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home2003-12-24](http://index.jsp?pageI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home2003-12-24))

### ④ 신뢰할 수 있는 시장(市場)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용 지침서 배포 (뉴욕)

미국 뉴욕시 소비자사무국은 중소기업들이 소비자들을 상대할 때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법 등을 요약한 2가지 책자, 「소매상인이 알아야 할 것」과 「용역업체가 알아야 할 것」을 최근 발간, 배포하였다.

소비자사무국은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市場), 정직한 비즈니스가 번창할 수 있는 시장(市場)을 육성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소책자에서 중소기업들이 알아야 되는市の 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소매상인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책자에는 가구점, 식품점, 보석점, 주유소, 담배상인, 전자제품 상점, 중고차 상인 등이 알아야 할 사항이 수록되어 있으며, 「용역업체가 알아야 할 것」에는 자동차 임대 회사, 장례식장, 세무사, 세탁소, 전자제품 딜러, 여행사 등이 알아야 할 사항 등이 각 부문별로 수록되어 있다.

([www.home.nyc.gov/html/dca](http://www.home.nyc.gov/html/dca))

### ④ 市정부가 수익 증대를 위해 호텔 벤처 사업 추진 (애리조나州: 피닉스市)

미국 애리조나州의 피닉스市는 최근 도심에 市가 운영하는 호텔을 지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건설비용으로 3억달러가 소요되는 이 호텔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도 분분하나, 市당국은 호텔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市는 현재 건설비용 조달을 위해 채권 발행 및 민자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수익 보장을 위해 필요한 객실 운영률 및 적정 요금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 市정부가 호텔 사업에 직접 나서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시카고, 새크라멘토, 휴스턴, 덴버 등이 그 사례 지역이다.

([www.azcentral.com/news/articles/1217hotel.html#](http://www.azcentral.com/news/articles/1217hotel.html#))